

신증후군 환아에서 1년내 재발과 관련된 위험 요인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

신혜경, 김지희, 유기환, 홍영숙, 이주원, 김순경

목적: 신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환아에서 신장 조직 검사 없이 진단 당시 임상 소견 및 혈액과 소변 검사 소견만으로 1년 내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.

방법: 1997년 7월에서 2002년 6월까지 만 5년간 고려대학교병원 소아신장 클리닉을 내원한 환아 중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을 보였던 신증후군 환아 78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. 환아는 두 군으로 분류하였는데 I군은 재발이 없거나 스테로이드 치료하여 반응을 보인 환아에서 첫 1년 내에 재발이 2회 이하로 있는 환아였고 II군은 스테로이드를 치료하여 반응을 보인 환아에서 첫 1년 내에 재발이 3회 이상 있는 환아로 하였다. 모든 환아에 대해 각각 성별, 나이, 진단 당시 혈청 알부민, 콜레스테롤, 24시간 요단백, 크레아티닌 청소율, 혈뇨 및 고혈압의 유무, 초기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여 완해되는데 걸린 기간 등을 비교하였다.

결과: 78명의 환아중 남아는 61명(78%), 여아는 17명(22%)였고 평균 연령은 5.1 ± 3.0 세였으며 47명(60%)은 I군에 속했고 31명(40%)은 II군에 속했다. 성별, 혈청 알부민, 콜레스테롤, 24시간 요단백, 크레아티닌 청소율과 혈뇨 및 고혈압 유무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두 군의 평균 발병 연령은 I군에서 5.1 ± 3.1 세, II군에서 4.9 ± 2.9 세로 II군의 발병 연령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발병 연령을 3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3세 이하의 환아 중 많은 수가 II군에 속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($p < 0.05$). 또한 초기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여 완해가 일어나는 시기를 비교했을 때 I군은 12.9 ± 0.5 일, II군은 16.2 ± 1.1 일로 II군에서 완해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양상을 보였다($p < 0.05$).

결론: 신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아에서 초기 진단 당시 연령이 3세 이하로 어리거나 초기 스테로이드에 치료에 반응하여 완해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나쁜 예후를 보이는 양상을 보였다. 따라서 추후 신 증후군 환아 진단시 예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.